

제주·전남·부산·경기 의왕 4곳 전력생산 ‘분산에너지특구’ 지정

기후부, 에너지위원회 개최

에너지 수요지역 인근서 생산키로
사업자-사용자, 전력 직접거래 허용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 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력을 소비하는 곳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이른바 ‘지산지소’를 이뤄 낼 지역을 가리킨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5일 에너지위원회를 주재하고, 분산특구 최종후보지 7곳의 사업을 심의한 뒤 제주, 전남, 부산, 경기 의왕 등 4곳을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했다.

분산특구는 원거리 송전망을 이용하는 대신 수요지역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한다. 아울러 이곳에서 소비하도록 하는 지산지소형 시스템이다.

전기사업법상 발전·판매 겸업 금지의 예외로 분산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전력 직접거래가 허용되며 규제 특례가 적용돼 다양한 요금제와 전력 신산업 모델을 활성화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분산특구 최종후보지로 7곳을 선정한 바 있다.

신산업활성화 후보지는 5곳으로 경기 의왕, 경북 포항, 부산, 제주, 전남 등이었고, 수요유치 후보지는 2곳으로 충남 서산과 울산이었다.

에너지위원회는 이 중 포항·울산·서산을 뺀 4곳을 분산에너지특구로 지정했다.

제주는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와 실시간 시장 같은 혁신적 제도가 갖춰진 곳으로 분산에너지 시스템 실험의 최적지로 꼽힌다.

이번 분산특구 지정으로 잉여 재생에너지를 히트펌프를 이용해 열에너지로 전환하는 P2H 사업과 사업자가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통합해 전력시장에 참여 및 수익모형을 발굴하도록 하는 가상발전소 사업, 전기차 배터리를 ESS처럼 활용하는 V2G 사업 등이 추진된다.

전남은 태양광 보급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계통 부적으로 출력 제어가 빈번하다. 태양광 발전소가 밀집한 해남·영암 지역에 데이터센터를 유지해 지역내 생산-소비를 실현하고 인공지능(AI) 기술로 전력 생산-소비를 최적화하는 마이크로그리드 기술을 산업단지, 대학교 등에 다양하게 실증한다.

또 재생에너지 99.6%가 위치한 배전망에 ESS를 보급해 재생에너지 접속대기 물량을 최소화하면서 배전망 운영을 효율화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부산과 의왕은 전력 공급 대비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수요 관리의 최적화가 필요하다. 부산은 ESS를 대규모 설치하고 산업단지·항만·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수용가에서 활용해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마련한다.

의왕의 경우, 공원 내 태양광·ESS·전기차 충전소를 연결하는 마이크로그리드를 활용해 저장된 전기를 전기차에 충전하고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실증한다. 이번 분산특구 지정은 당초 계획보다 6개월가량 지연됐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마련된 삼성전자 전시관을 찾은 방문객이 ‘웨어러블 보행보조 로봇’을 체험하고 있다. /뉴시스

첨단의료기기 R&D에 7년간 9408억 투입

산업부 등 4개부처 공동 참여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R&D)사업에 향후 7년간 1조 원 가까운 예산이 편성될 전망이다. 투자의 초점은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의 전략적 육성에 맞춰진다. 정부는 의료기기 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 중 하나로 키운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산업통상부는 5일 2026년부터 2032년까지 7년간 총 9408억 원(국비 8383억·민자 1025억)을 투입하는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2기)’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이는 세계 최초 또는 최고 수준의 국면전환 요소(게임체인저)급 의료기기 6건 개발을 비롯해 필수의료기기 13건의 국산화 등의 성과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범부처 협력 사업이다. 특히 기

초·원천 연구부터 제품화, 임상, 인허가까지 의료기기 연구개발의 전주기를 지원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AI와 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 등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전략적 육성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세계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의료기기 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정책 목표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추진된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1기)’의 성공적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8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1기 사업에서는 총 467개의 과제가 지원돼 최근 5년간 국내외 인허가 433건(국내 331·해외 102)과 기술이전 72건, 사업화 254건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쉬었음’ 인구 264만명… 전년비 7.3만명 ↑

데이터처,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남자 7.9만명, 여자 6000명 감소
이유 35% ‘몸이 좋지 않아서’ 1위

올해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쉬었다’는 인구가 지난해 대비 7만 명 넘게 늘어났다. 쉬었음의 이유로는 ‘몸이 좋지 않아서’라고 답한 비중이 가장 컸다.

국가데이터처가 5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쉬었음 인구는 264만 1000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7만 3000명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70세 이상(4만 명), 60대(1만 9000명), 50대(1만 6000명), 30대(1만 9000명) 등에서 쉬었음 인구가 증가했다. 반면 40대(-6000명)와 20대(-3000명), 15~19세(-1만 2000명)에서는 감소했다.

쉬었음 인구 증가는 남성이 압도적이었다. 남자 쉬었음 인구가 7만 9000명 증가한 데 반해 여자는 6000명 감



소했다.

쉬었음 인구는 2022년 223만 9000명에서 2023년 232만 2000명, 2024년 256만 7000명, 2025년 264만 1000명으로 최근 3년간 18% 가까이 급증했다. 같은 기간 15세 이상 인구가 1.12%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변동폭이 급격했다.

쉬었음의 주된 이유로는 ‘몸이 좋지 않아서’(34.9%)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19.0%), ‘퇴사(정년퇴직) 후 계속

쉬고 있음’(18.4%) 순이었다.

청년층(15~29세) 쉬었음 인구는 44만 7000명으로 전체의 16.9%를 차지했다. 15~29세 연령층에서는 쉬었음의 주된 이유로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움’(34.1%)을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고, 지난해(30.8%)에 비해 응답 비율도 늘었다.

8월 기준 전체 비경제활동인구는 1622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000명 증가했다. 15세 이상 인구 중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은 35.4%로 전년동월대비 0.2%포인트(p) 하락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을 말한다.

활동 상태별로 보면 가사(597만 7000명, 36.9%), 재학·수강 등(327만 1000명, 20.2%), 쉬었음(264만 1000명, 16.3%), 연로(248만 명, 15.3%), 육아(68만 4000명, 4.2%) 등의 비중이 높았다. 가사는 1만 3000명, 재학·수강 등은 2만 1000명 증가했고, 연로는 5만 명, 육아는 4만 8000명 감소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남부발전, 석탄발전 자체기동 실증 성공

전력계통 변동성 대응 강화

한국남부발전이 석탄화력 설비의 자체기동 실증시험에 성공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계통 변동성 대응력을 한층 강화했다.

5일 남부발전에 따르면, 하동빛드림 본부는 최근 보조보일러 없이도 발전 설비를 자체 기동하는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2009년 보조보일러를 타 발전소로 이설한 이후 하동본부는 그동안 다른 호기에서 생산된 보조증

기를 이용해 기동 초기 증기를 확보해 왔으나,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와 경부하기 수요 감소로 석탄발전 전 호기를 정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자체기동 능력 확보가 필수 과제가 됐다.

이에 하동본부는 지난해부터 총 5회에 걸쳐 자체기동 실증을 진행하며 기술 절차를 정립하고 운전역량을 강화해왔다. 이번 시험 성공으로 2026년 설 명절이나 봄철 경부하기 기간에도 전 호기 정지 상황에서 계통 복구와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노동부, 청년 해외지원 우수사례 경진

67개 기관 참여, 12곳서 사례 발표

정부가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기관 간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경진대회를 열었다. 해외 진출 맞춤형 교육모델과 현지 기업 연계형 연구과정을 도입해 실질적 성과 확산에 나선 것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5일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2025년 해외취업지원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해외취업연

수사업과 해외일경험지원사업 운영기관 등 67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서류심사를 통과한 12개 기관이 부문별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올해는 일정 수준의 어학·직무 역량을 갖춘 청년에게 초단기 교육을 제공하는 ‘패스트트랙’과, LG에너지솔루션·SK AX USA 등 국내기업 해외법인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연구과정이 새로 도입됐다. 공단은 이러한 혁신 사례를 통해 청년들이 빠르게 글로벌 현장에 안착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aT, 홍콩 호텔에서 ‘K-한우’ 메뉴 선보여

한우만두 등 6개 메뉴 ‘호평’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10월 한 달간 홍콩 5성급 호텔에서 K-한우를 활용한 프리미엄 메뉴를 선보였다고 밝혔다.

5일 aT에 따르면 이 행사는 아시아와 서구 미식 문화가 공존하는 홍콩에

서 한우의 맛과 매력을 현지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프랑스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출신인 플로리안 뮐러(Florian Müller) 총괄 셰프는 한우의 풍미와 식감을 섬세하게 살린 6가지 시그니처 메뉴를 개발해 선보였다. ▲한우 부추전과 부추샐러드 ▲한우 큐브와 떡꼬치 ▲

한우 등심을 얹은 사워도우 토스트 ▲한우롤 ▲한우만두 ▲매추리알을 얹은 한우 육회 등으로 구성된 이번 메뉴는 현지 방문객들로부터 미식과 예술이 어우러진 요리라는 호평을 받았다.

한 방문객은 “빅토리아 하버가 내려다보이는 전망 속에서 즐긴 한우 요리와 와인의 조화가 인상적이었다”며 “한우의 깊은 풍미를 다양한 방식으로 맛볼 수 있어 만족스러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